

인간의 얼굴을 한 미술사

- 감정의 역사 : 웃음의 과학

- 이진숙 <시대를 훔친 미술> 저자

#미술사 최대의 스캔들 메이커,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 모나 리자(라 지오콘다), 1503-1506

“비록 생명이 없는 대상들이지만 아름다운 사물을 그리는 화가가 아들은 왜 그렇게 못생기게 두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화가는 대답했다. “그림은 낮에 그리지만, 아이는 밤에 만들어서 그렇다네.”

누굴까, 이런 썰렁한 아재개그를 남발하는 사람은? 놀라지 마시라. 바로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다. 그가 남긴 학자풍의 진지한 자화상 이미지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시답지않은 농담이다. 그는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근법, 색채, 조각 등 미술과 관련하여 5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육필 원고를 남겼다.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 인간의 다양한 감정에 대한 단상과 우화, 농담과 일화가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웃음을 홀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점은 아주 중요하다.

그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 바로 '웃는 여자 (La Gioconda)'이기 때문이다. '웃는 여자', 즉 라 지오콘다(La Gioconda)는 <모나 리자 **Mona Lisa**>의 다른 이름이다. 그녀는 미술사 최대의 스캔들 메이커다.

모두 다 그녀를 원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와 1세 시절 프랑스로 가져갔다. 탁월한 미술 안목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찰스 1세가 간절히 탐했고,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된 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방에 걸려 있었다가 루브르가 미술관으로 개편되면서 옮겨왔다. 후에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국 이탈리아에서 송환 소송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한다. 모두가 이렇게 탐하던 그림은 1911년 너무 쉽게 도난을 당했다 2년 뒤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왔다. 그 후로는 특별 경호 속에 있다. 막상 루브르에 가보면 유명세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관람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 유명한 미소의 신비함을 느끼기는 어렵기만 하다.

그럼에도 <모나 리자>는 약 1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술사에 놀라운 권위를 행사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젊은 예술가들은 걸핏하면 <모나 리자>에 시비를 걸었다. <모나 리자>는 말레비치, 뒤상,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 등 과거의 예술 관행을 파기하고 새로운 예술 시대를 열고자 하는 많은 예술가들의 주요한 공격목표가 되곤 했다. 지금도 특하면 루브르에 걸려 있는 <모나 리자> 앞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 모나리자에게 키스를 하겠다, 여성 예술가의 미술사적인 지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겠다 등등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그 동안 <모나 리자>를 둘러 싸고 벌어진 여러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그녀의 정체였다. 소장처인 루브르는 확신 없는 어조로 일단 바사리가 남긴 기록에 따라 피렌체에 공화정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던 상인, 프란체스코 조콘도 Francesco del Giocondo 의 아내 리자 게라르디니 Lisa Gherardini 의 초상화라고 말한다. 모나 리자 Mona Lisa 는 말 그대로 리자 부인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사실 바사리의 ~카더라 식의 기록 말고는 이 여인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문헌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단점이다. 이외에도 만토바의 여걸 이사벨라 데스테 등 몇 명이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런데 주문받아 그린

남의 초상화는 일반적으로 화가가 평생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어서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

웃는 여자의 웃지 못할 이야기



보조이미지1. 레오나르도 다빈치 추종자, Nude study for La Gioconda, 1513

최근에 제기된 새로운 가설은 누구의 초상화도 아니고 그냥 “웃는 여자(La Gioconda)”를 그렸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어 지오콘도 giocondo 는 ‘유쾌한, 즐거운’이라는 뜻의 형용사다. 그래서 앞에 여성용 관사 la 가 붙으면 그냥 명량한 여자, 즐거운 여자, 웃는 여자가 된다. 지금까지는 Giocondo 의 부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성을 따르고 여성형 어미 a 를 붙여서 La Gioconda 라고 불렀다고 생각해왔다. ‘웃는 여자’라는 주장이 그림의 주인공을 찾다가 지쳐버린 자포자기의 학설은 아닌 것 같다. 이 본질적이면서도 단순한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다. 미술사학 전체, 서양의 문화사 전체가 웃음을 배척하는 엄숙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웃는 여자’의 웃지 못할 이야기다.

<모나 리자>를 둘러싼 스캔들, 혹은 험담들은 모두 그녀가 웃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바사리가 이 웃음을 “인간적인 것을 넘어 성스럽게까지 보이는 미소”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바사리 입장에서는 ‘실로 놀랄 만한 신과도 같은 레오나르도’가 포르노그래피의 원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당시 웃는 여자가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는 그 후에 등장한 <모나 리자>의 모방작에서 알 수 있는데, 모나리자 풍의 미소를 띤

여인을 누드로 그린 그림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즉, 웃는 여자는 유혹하는 여자, 꼬리치는 여자라는 참으로 지긋지긋하게 오래된 착각을 여기서도 만나게 된다.

소위 슬픈 듯 기쁜 듯 신비로운 모나 리자의 미소는 19 세기말 세기말적 분위기 속에서는 더 노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실증주의 비평가 이폴리트 텐느는 이 미소가 “웬지 불안해 보이고 음란하며 쾌락주의적이고 열정적이지만, 그럼에도 슬프기도”하다고 말한다. 1910 년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신을 분석한 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이 미소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출산한 후에 곧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난 어머니 카테리나의 미소를 닮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사랑의 특징인 “감추기와 유혹 사이의 대조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한편으로는 “순종하는 듯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상대에 대해 무관심한 갈망” 때문에 오히려 더 남자를 미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철저히 남성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는 서양문화 전체가 ‘웃는 여자’에 얼마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일 뿐이다.

Why so serious? - 웃음은 혁명이다

giocónda : 명랑한 여자, 웃고 있는 여자?

giocóndo : 1.유쾌한 2.활기찬 3.만족한

Archaic Smile/ 에게해의 미소 Aegean Smile : 천상의 웃음. 아기의 배내 웃음 같은.....



페를로스의 코레, 기원전 530년

Cathédrale de Reims (Marne). Ange Gabriel, groupe de l'Annonciation. C.1211

Jan van Eyck, Annunciation, 1434-1436,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도대체 웃음이 왜 문제인가? 히스 레저가 열연한 조커의 의미 심장한 대사 반복해 보자, “Why so serious?” 서양문화의 두 축인 헬레니즘(고대 그리스 로마문화)와 히브리즘(기독교 문화) 양쪽 어디에서도 웃음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웃음의 철학>을 쓴 만프레트 가이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중심이 된 <향연>에는 “위트, 웃음 그리고 여자”가 배제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시학>에서 비극은 높게 치지만 희극은 낮은 장르로 폄하했다. 마사초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아담과 이브는 울면서 낙원에서 쫓겨나왔다. 원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중세 말기로 갈수록 수난자로서의 예수의 이미지가 강화됨으로써, 수난과 참회라는 비극적인 정조가 중요해지니 인간의 웃음은 들어설 자리가 별로 없었다. 그 후로 등장하는 세계사의 영웅들은 언제나 진지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2019 년에 개봉한 조던 필 감독의 영화 <어스 US>의 한 등장인물은 애초에 자신이 ‘잘못 태어났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웃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양문화에는 웃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뿌리깊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인간이 웃지 않을 수 있을까? 웃음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웃음은 걸핏하면 조롱과 풍자로 오해받았다. 조롱과 풍자는 웃음이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웃음이지 내적인 행복에서 기인한 자족적인 웃음이 아니다. 다만 진지함을 우대하는 문화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을 뿐 웃는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시점 상으로는 플라톤(BC 427 ~ BC 347 년)이 태어나기 전인 기원전 530 년경의 아르하이 시대 Archaic Period (600 BCE to 480 BCE) 의 그리스 조각 페플로스의 코레는 웃고 있었다. 이 웃음을 아르하이의 미소 Archaic smile 라는 부른다. 이것은 중세에는 그 웃음이 기원한 장소를 기념하는 뜻에서 지중해를 일컫는 에게해의 미소(Aegean Smile)라는 명칭으로 서구 문화에 스며들었다. 세속화의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 13 세기 초에는 프랑스 랭스 대성당의 조각 <수태고지>의 가브리엘 천사의 웃음으로, 그리고 15 세기 초 얀 반 에이크의 그림 <수태고지>의 가브리엘 천사의 웃음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이것은 아기들의 배냇 웃음, 혹은 우리나라의 백제의 미소와도 같이 근원적인 행복감을 담은 자족적인 웃음, 우울한 철학에 오염되지 않은 원초적인 웃음이다. 이 자족적인 웃음은 모든 것에 이유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지한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웃음이고, 위계 질서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은근히 모독감을 주는 웃음이다. 옴화미소는 깨달음을 얻은 제자 가섭에게 부처가 보내는 웃음이다. 진정한 웃음이란 상대방이 나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세의

가을>을 쓴 하위징어 같은 사람도 반 에이크의 천사의 웃음을 예게해의 미소라고 일컬으며 무의미하고 뻗뻗한 웃음이라고 낮게 평가한다. 그가 생각하는 근대는 새로운 종교운동인 데오티보 모데르나(deotivo moderna)의 경건주의와 금욕적인 성찰과 함께 탄생하니 설명할 수 없는 이 웃음은 그저 문화적 미발전 단계의 흔적으로만 보이는가 보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모나 리자는 웃고 있다. 웃음이 배제된 사회에서 웃음은 혁명이다. 웃음을 배제한 사회의 주인공은 대부분 진지한 남자 영웅이다. 17 세기에 그려지는 것처럼 웃는 남자는 술 취한 남자, 혹은 어리석은 농부들이다. 16 세기 웃음을 복원한 라블레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같은 수준 높은 작품 속에서도 주인공들은 스스로 잘 웃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웃기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가문은 서양 모과를 잘못 먹어서 신체일부가 거대하게 부푼 거인족에서 유래하니, 외모 자체부터 우스꽝스러운 측면이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난 여자에게 웃음을 부여했다. 모나리자는 웃기지 않으면서 웃는 여자. 이것은 당시의 통념에서 벗어난 혁명이었다.

Why so serious? - 웃음은 과학이다



보조이미지 5. Leonardo da Vinci. Madonna Benois. c. 1475-1478. Oil on canvas, 49.5 cm × 33 cm, Hermitage, St.Petersburg, Russia

<모나 리자> 이전에도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웃음을 실험한 적이 있었다. 소장자였던 러시아의 유명한 가문의 이름을 따서 <베누아의 마돈나 Benois Madonna>라 부르는 작품 속에는 매우 획기적인 두 표정이 등장한다. 사춘기 철없는 소녀 같은 앳된 성모는 이까지 살짝 드러내면서 웃고 있다. 이 웃음은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는 웃음이다. 서양미술사에서 남녀를 통틀어서 이렇게 웃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하물며 성모라니. 성모는 중세 교리상 웃을 수가 없었다. '신의 예정설'에 입각한 중세의 시간관념에 따르면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기는 서른세살이 되면 모진 수난을 겪을 것이 예정되어 있기에 성모는 결코 웃을 수 없다. 성모의 슬픔은 신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모의 환한 웃음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 이 순간만이 전부인 인간, "지금-여기"에서 일점소실점을 응시하고 있는 원근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표정이다. 원근법은 과학의 발전과 관련 있다. 성모의 손에 들린 꽃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아기 예수의 표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처럼 자연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인간의 등장을 의미한다. 다빈치의 웃음은 과학이다.

이제 <모나 리자>의 배경부터 찬찬히 살펴보자. 웃는 그녀의 배경은 해질녘 풍경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론>에서 사물을 가장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반그늘 상태를 권장했다. 적절히 조정된 차분한 빛은 후에 고전적인 회화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될 때까지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모나리자의 왼쪽 어깨 쪽 풍경보다 오른 어깨 쪽의 지평선이 더 높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눈의 운동을 고려한 의도적인 배치이다. 그림 자체는 정적이지만 그림을 보는 우리의 눈은 움직이는 동적인 것으로, 그 움직임을 유도할 때 그림은 더욱 살아있는 생생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나리자의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그리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한다. 스푸마토 sfumato 는 '연기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의 형용사로 회화에서는 물체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윤곽선을 자연스럽게 번지듯 그리는 일종의 명암법인데, 이는 공기 원근법이 사물에 적용된 형태이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교해보면 스푸마토 기법의 효과를 단번에 알 수 있다. 보티첼리의 모든 것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V 라인을 그리고 있는 비너스의

날렵한 턱선과 목 사이에는 아무런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납작해 보인다. 이에 비해 모나리자의 턱이 유달리 두툼해 보이는 것은 턱과 목 사이에 있는 공간이 충분히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가느다란 선으로 그려진 선명한 눈썹과 쌍꺼풀을 가진 대신 모나리자는 자연스럽게 깊은 눈두덩이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모나리자의 눈썹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화가들이여! 뚜렷한 선으로 대상의 경계를 짓지 마시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늘 힘주어 말했다. 스푸마토 기법의 천재적인 적용으로 이 말 많은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간 알듯말듯한 미소가 탄생한 것이다! 이후로도 웃는 사람을 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여전히 인간의 역사는 영웅들의 영웅담에 몰두하느라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웃음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웃음은 혁명이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웃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권위주의는 언제나 내용보다 형식적인 위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위계 침해의 형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웃음은 함께 웃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함께 웃지 못하고 타인의 웃음을 지켜보기만 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가 공격받은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한다. 진짜 웃기는 일은 다음 단계에서 벌어진다. 권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종종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을 해놓고도 그것을 보고 웃는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벌주는 웃기는 짓을 한다. 웃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선해야한다. 웃음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